

海技教育에 있어 效率的 人的資源管理를 위한 成·敗歸因에 관한 實證研究

金成哲¹⁾, 姜元植²⁾

An Empirical Study on Success-Fail Attribution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Maritime Education and Training

Seong-Cheol Kim, Won-Sik Kang

Abstract

It is one of the important study for improving education quality to investigate School climate, Campus Life and Academic Achievement in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the of success / failure attribution in academic achievement and its internal-external attribution of Maritime college student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college climate and attribution of success and failure about college life and cadet's academic performance.

The subjects were 490 cadets of freshman, sophomore and junior of Korea Maritime University.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Social relationship orientation was higher than the others on the perception of college climate, while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or and collegian was lower.
2. The most collegian recognized on the attribution of failure about the

1) 한국해양대학교 해운경영학과 석사과정

2) 한국해양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college lif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or and collegian. But most collegian recognized on the attribution of success about collegian's relationship.

3. The perception of college climate and attribution of success / failure was not influenced on the student's academic performance and academic adaptability.

제1장 서론

최근의 대형 해난사고의 상당부분이 인적과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國際海事機構(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는 海技教育의 重要性을 강조하여 1978년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國際協約(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STCW)을 더욱 강화하여 기본적인 海技教育의 內實을 強調하고 있다.³⁾ 또한 국가간의 항구를 航行하는 선박에 종사하는 海技士를 양성하기 위한 海技教育은 國際協約에 의해서 교육과정이 모델화되어 있고, 教育成果의 비교가 國際的으로 나타나는 매우 특성있는 教育體制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일반 대학의 교육과는 달리 승선생활관 교육과 승선실습 교육과정은 海技教育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으로 인식되어 왔다.⁴⁾

우리 나라 海技教育大學의 학생들은 海技教育課程중 國際協約에 의거한 6개월~1년간의 승선실습 교육과 졸업후 근무할 해상의 승선환경에의 적응을 위하여

- 3) IMO에서는 1978년 STCW 협약의 全面 改正作業을 추진하여 1995년 6월의 STCW 총회에서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개정 STCW 협약은 1997년 2월 1일자로 발효되었으며, 1995년 7월에 개정된 STCW 협약에서는 해기고등교육기관에서 教育·訓練의 評價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IM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As Amended in 1995*, London: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1996.의 Reg. I /8(Quality standards)를 참조.
- 4) 해기교육의 秀越性 확보를 위한 기존의 연구로는 대표적으로 南靑都, 效率的인 實習教育 改善方案, 海洋安全學會誌 第1卷 第2號, 1995. ; 李相鍊, 21世紀를 向한 海技高等教育, 韓國航海學會誌 第17卷 第1號, 1993. ; 李相鍊, 高度成長社會에 있어서의 海技高等教育方案에 관한 研究, 韓國海洋大學校附設海事産業研究所 論文集 第2輯, 1992. ; 海事學部發展計劃研究委員會, 「해기고등교육 개발에 관한 연구」, 부산: 韓國海洋大學, 1991. ; 辛翰源 外, 해사대학생들의 효율적인 승선생활훈련 방안에 관한 연구, 韓國航海學會誌 第15卷 第4號, 1991. ; 李相鍊 外, 海運職 專門人力의 精神教育開發에 관한 研究, 韓國海運學會誌 第6號, 1988. ; 鄭世謨 外, 韓國海技士의 教育開發에 관한 研究, 韓國航海學會誌 第8卷 第1號, 1984. 등이 있으며, 가장 효율적인 海技教育의 方法으로 승선생활관 훈련과 승선실습 과정을 제안하고 있다.

승선생활관 교육을 통하여 宿營生活態도를 하고 있는데, 이 宿營生活態도는 입학전 적응교육과 동시에 시작하여 졸업하는 시점까지 계속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재학기간의 대부분을 승선생활관 및 실습선에서 불로들과 宿營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환경을 고갈할 필요가 있다. 즉 대학생활의 學業成就, 同僚間的 關係 및 人格形成에 직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승선생활관 및 실습선에서의 생활을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 후반기의 高賃金 魅力의 退潮로 惹起된 해기교육의 침체와 교육환경의 대내외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海技教育의 活性化를 위한 주춧돌을 위한 1990년 이후의 海技教育大學 學生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成·敗歸因(success-fail attribution)과 學校風土意識(school climate)에 관한 실증분석과 아울러 學業成績 및 生活態度와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海技教育의 卓越性 확보와 海技教育制度의 宿營生活의 妥當性 提審을 규명하고자 한다.

제2장 연구방법론

제1절 연구가설의 설정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의 6개 영역에 따라 연구목적에 맞는 가설을 細分化시켰다. 구체적인 연구가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學校風土意識

가설 1) 학년간 學校風土意識은 差異가 있을 것이다.

2. 成·敗歸因

가설 2) 학년간 學校生活에 대한 成·敗歸因은 差異가 있을 것이다.

3. 宿營生活態도와 學業成績

가설 3) 학생의 功過規定點數와 學業成績과는 正的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4. 學校風土意識과 學業成績 그리고 宿營生活態도와 의 관계

가설 4) 학생의 學校風土意識과 學業成績과는 正的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5) 학생의 學校風土意識과 功過規定點數는 正的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5) 해기교육 대학의 宿營生活의 논의에 대해서는 李相鍊 外, 前掲書, 1988.; 鄭世說 外, 前掲書, 1984. 등을 참조.

6)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와 재학생들의 자아실현적인 지적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海技教育에 병행하여 해기 관련 전문분야 교육과정의 신설.

5. 成·敗歸因과 學業成績과의 관계

가설 ⑥ 成功認識 학생이 실패인식 학생보다 學業成績이 더 높을 것이다.

가설 ⑦ 成·敗에 대한 內的歸因 학생이 외적귀인 학생보다 學業成績이 더 높을 것이다.

가설 ⑧ 學業成績에 있어 成·敗認識과 內·外的 歸因性向의 상호작용효과는 없을 것이다.

6. 成·敗歸因과 宿營生活態度와의 관계

가설 ⑨ 成功認識 학생이 실패인식 학생보다 功過規定點數가 더 높을 것이다.

가설 ⑩ 成·敗에 대한 內的歸因 학생이 외적귀인 학생보다 功過規定點數가 더 높을 것이다.

가설 ⑪ 功過規定點數에 있어 成·敗認識과 內·外的 歸因性向의 상호작용효과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행연구인 學校風土에 관한 연구에서는 學業成就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된 학습자 변인으로서 대부분 나이 어린 초중등학교 및 일반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단체 宿營生活과 船泊勤務라는 특별한 목적을 지니고 있는 海技教育大學에서는 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⁷⁾

제2절 자료분석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연구대상으로는 한국의 대표적인 海技高等教育機關인 韓國海洋大學校의 海事大學生들을 표본으로 삼았다. 標集은 연구결과의 妥當性和 信賴性を 위해 전국의 해운계 海技教育機關을 대상으로 無作爲抽出(random sampling)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연구목적에 맞추어 韓國海洋大學校에 한하여 任意抽出하였다.⁸⁾ 설문지의 배포 및 회수는 1997년 4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7) 최근의 우리 나라의 선행연구에서는 귀인성향과 학업성적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지지하는 연구결과 (羅炳述, 前掲書, 1989.; 吳榮煥, 學習者の 歸因 行動과 學業 成就와의 關係 分析, 中央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8.; 柳基燮, 前掲書, 1987.; 安貴德, 前掲書, 1986.: 初中高等學生을 대상으로 함)과 관계없음을 보고하고 있는 상반된 결과(李煜基, 大學生의 學校風土意識 및 大學生生活에 대한 成·敗歸因과 學業成就와의 關係, 中央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1.: 大學生을 대상으로 함)가 있다.

8)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해운계 海技教育大學은 2개 대학교(韓國海洋大學校와 木浦海洋大學校)가 존재하고 있지만, 각 대학교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하고자 하는 宿營生活態度의 평가기준인 功過規定點數를 計量的으로 標準化시키는 것이 곤란하였다.

실시하였는데, 총 배포된 설문지는 600부중 503부가 회수되어 약 83.3%의 비교적 높은 회수율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회수된 503부 가운데 무성의한 응답을 한 13부가 폐기 처분되어 실제연구에 쓰인 분석자료는 490부였다. 연구 대상의 학년별 분포는 [표 2.1]과 같은데 이들은 승선생활을 목적으로 승선생활관 및 실습선에서 4년간의 宿營生活를 하여야 하는 학생들이며, 숙영생활을 하지 않는 일부의 학생은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기초적인 자료는 승선생활관, 실습선 및 수업과에서 제공한 과거 1년치(1996학년도)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표 2.1] 연구대상의 표본과 전체중 비율

	1학년	2학년	3학년	계
연구분석대상	163명 (33.2%)	199명 (40.6%)	128명 (26.1%)	490명 (100%)

2.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의 측정방법으로 說問紙 調査를 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설문지는 교육학 분야에서의 학생의 意識과 學校環境尺度를 사용하는데 유용한 개발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특히 학생들이 자기의 대학풍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學校風土意識에 관한 설문지는 페이스와 스텐(Pace and Stern)이 學校環境尺度에 기초하여 제작된 道具⁹⁾를 근간으로 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학교풍토의식에 관한 설문은 實用指向性, 學文指向性, 캠퍼스 士氣, 認知指向性, 教授-學生關係, 禮節指向性 및 社交指向性 등 7개 영역으로 構成¹⁰⁾하였으며 설문지의 내용은 다음 [표 2.2]와 같다.

- 9) C. R. Pace and G. G. Stern, "An Approach to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College Environ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49, 1958. ; 亞洲大學校 學生生活研究所, 「學校風土檢査」, 수원: 亞洲大學校, 1984.
- 10) 石源植, "大學生的 學校風土意識과 情緒的 特性間的 常關 研究", 연세대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7.

[표 2.2] 설문지의 영역과 설문내용

영역	설문내용
實用指向性	교수의 강의 준비 및 강의내용 대학의 학생들에 대한 기대행동양식 학생들의 대학 공공 재산의 보호 학생들의 대외적인 행사 참여 교내 상황의 전파 학생들의 충동적 행동 학생들의 허세 및 과시욕
學問指向性	교수의 학생들에 대한 학문적 관심 학생들의 토론 승부욕 학생들의 학업 성취욕 교수의 수업내용 점검 대학의 학문적 우수성 학생들의難과제 해결 능력 학생들의 교수 신뢰
認知指向性	대학의 학업평가 빈도 학생들의 개인 소견 발표 빈도 학생들의 학문 수행의 지속성 학생들의 시사 토론 빈도 학생들의 학문 토론 빈도 대학의 교육 목적 학생들 개인의 긍지
캠퍼스士氣	학생들의 대학에 대한 건의 빈도 대학 강의실의 분위기 대학의 학생 주장 및 요구 수용 학생들의 교칙 및 규정 준수 학생들의 학교 생활의 흥미 학생들의 학교 정책 이행 학생들의 자기 표현
教授-學生關係	교수 및 직원의 친절 교수의 학생에 대한 지도 및 상담 교수의 강의 관심 교수의 학생의 개인적 관심 학점 취득의 수월 교수의 학문 영역과 강의 능력 학생들의 강의에 대한 관심
禮節指向性	생활공간의 청결유지 학생들의 언행 정결 및 시간 절약 교수에 대한 존경 학생들의 질서 유지 학생들의 행동 조심 학생들의 복장단정 학생들간의 예절 준수
社交指向性	학생들의 집단적 행동 학교생활의 협동심 대학의 명량한 분위기 학교생활의 가정적 분위기 학생들의 일체감 개인의 신변 논의 개인의 지명도 수준

歸因性向(locus of control)에이러한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중 學業成就, 教授와의 關係, 同僚와의 關係면에서 각각 자신이 성공했는지 아니면 실패했는지를 인식하는 것이며, 또한 그 같은 成敗의 原因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하는데, 이때 成敗의 原因을 주로 努力(effort) 혹은 能力(ability) 要因이라면 內的 歸因性向(internal locus of control), 그 原因을 과제의 難易性(task difficulty) 혹은 運(luck) 要因이라고 하면 外的 歸因性向(external locus of control)이라고 하였고, 각 영역별 7분형식 중 49분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각 질문의 응답을 부정이면 0점, 부분긍정이면 1점, 긍정이면 2점으로 하여 계산하였다.¹¹⁾

從屬變因인 學業成績은 1년간의 각 담당교수가 평가한 것을 이용하였고,¹³⁾ 연구대상의 성적평점의 평균은 4.5이며 높을수록 성적은 좋다.

또한 從屬變因인 학생들의 宿營生活態度를 計量化하고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海技教育大學 학생의 功過規定點數를 상점 : 벌점을 1 : 2로 상계하여 기본점수 400점에서부터 계산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宿營生活態度는 좋다. 분석대상은 연구대상의 制限點中으로 인하여 1, 2 학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3. 질문의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응용프로그램인 사회과학통계패키지(Statistical Packages for Social Science : SPSSWIN Ver. 7.5)를 이용하여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값을 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3]와 같다. 또한 거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변수들은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內的 信賴性을 유지하고

11) J. B. Rotter, *op cit.*, pp. 1~28.

12) 先行研究와 比較하기 위하여 같은 척도를 사용하였다.

13) 각 교수별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한 성적의 同質性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학업성적을 대표할 만한 척도라 판단되며 또한 선행연구와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선택하였다. 방법은 1996학년도 1, 2학기 성적을 算術平均하여 선택하였다.

14) 연구대상인 海技教育大學의 생활태도 평가는 규정에 의하여 평가받고 있으며, 상점 및 벌점을 1 : 2로 상계하여 측정하고 있다. 또한 1, 2학년의 경우 4학년 학생조직에 의해 대부분 평가되고 3, 4학년은 주로 교원에 의해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3학년의 경우 상기 상선 위탁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생활태도의 평가에 관한 규정이 없다. 아울러 각 학년별로 벌점의 제한폭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생활태도의 실증연구 부분에서는 1, 2학년의 경우로만 한정하였다. 한국해양대학교 승선생활관규정 제52조(상점수치 및 벌점지적)의 2 및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학생생활규정 제18조(상점 및 벌점의 처리)의 5 참조.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승선생활관규정 및 실습선생활규정, 1997-1998 한국해양대학교 요람, 부산: 韓國海洋大學校, 1997, p. 272, 279.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3] 변수들의 신뢰도

변 수	항목수	Cronbach's Alpha
實用指向性	7	0.7446
學文指向性	7	0.6953
認知指向性	7	0.6768
캠퍼스士氣	7	0.7012
教授-學生關係	7	0.7009
禮節指向性	7	0.6896
社交指向性	7	0.6820

제3장 실증연구

제1절 가설검증

1. 학교풍토의식에 관한 실증분석

學校風土에 대한 의식에 있어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①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 [표 3.1]과 같다. [표 3.1]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학년별로 차이를 보인 학교 풍토 영역의 것은 캠퍼스士氣, 社交指向性, 教授-學生關係 및 學文指向性 등 4개 영역으로 전반적으로 가설 ①을 긍정하였다.

[표 3.1] 학년별 학교풍토 하위영역의 평균 및 표준편차

(N=490)

	실용지향성		학문지향성		인지지향성		캠퍼스사기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학년 (N=163)	7.0000	1.7882	4.7791	2.3440	3.7730	2.0224	5.3313	1.9150
2학년 (N=199)	6.6985	1.8694	5.4422	2.6544	3.8141	2.2021	4.7638	1.8988
3학년 (N=128)	6.5703	1.5095	5.1484	2.3813	4.0625	2.0457	4.6328	1.9150
F	2.3929		3.1922*		0.7786		5.9006**	
유의도	0.0924		0.0419		0.4596		0.0029	
전체 (N=490)	6.7653	1.7596	5.1449	2.4953	3.8653	2.1022	4.9184	1.9275

	교수학생관계		예절지향성		사교지향성		전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학년 (N=163)	3.7239	2.0285	6.9571	2.4174	8.6871	2.1731	40.2515	8.3484
2학년 (N=199)	3.8392	2.0061	6.7387	2.2433	7.8241	2.6807	39.1206	9.7217
3학년 (N=128)	3.1953	1.7255	6.7188	2.0310	7.8906	2.8623	39.1206	10.1547
F	4.5392*		0.5523		5.7734**		1.7113	
유의도	0.0111		0.5760		0.0053		0.1817	
전체 (N=490)	3.6327	1.9586	6.8061	2.2486	8.1286	8.1286	39.2612	9.4211

df = 2, * p < 0.05, ** p < 0.01

또한 대학생들의 의식은 社交指向性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禮節指向性, 實用指向性, 學文指向性, 캠퍼스士氣, 認知指向性, 教授-學生關係의 순으로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행연구와는 최고와 최저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¹⁵⁾

學校風土에서 차이를 보인 영역에서 스킵(Scheffé) 檢證¹⁶⁾을 이용하여 事後檢證을 한 결과는 [표 3.2]와 같다. 實用指向性에 있어, 즉 學文指向性 및 社交指向性에서는 1학년과 2학년이 차이가 있었으며, 캠퍼스士氣에서는 3학년과 1, 2학년이 차이가 있고, 教授-學生關係에서는 2학년이 1, 3학년과 차이가 있었다.

[표 3.2] 학년별 학교풍토의식의 사후개별비교

	학문지향성			캠퍼스사기			교수학생관계			사교지향성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			*	
2학년	*											
3학년				*	*			*				

p < 0.05

15) 선행연구에서는 학년간의 차이가 부정되었으며, 一般大學生의 認識은 사교지향성, 학문지향성, 예절지향성, 인지지향성, 실용지향성, 캠퍼스사기, 교수-학생관계의 순으로 나타났다. 李永俊, 龍揚書, 1991, pp. 27~30.

16) Scheffé의 探索的事後多項比較(Exploratory post hoc multiple comparison test: Scheffé, 1953)는 아직 이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분야의 탐색연구에서나, 또는 사전에 계획되지 않았으나 자료를 수집한 후에 결정된 비교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李永俊, spss/pc+를 이용한 基礎統計分析, 서울: 석파, 1993, pp. 305~309.

2. 성·패귀인에 관한 실증분석

학년별로 學校生活에 대한 成·敗歸因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②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 [표 3.3]와 같다. 실증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p>0.05$ 로서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설 ②는 부정되었다. 그러나 이 분석을 통하여 보면 學業成績 및 敎授와의 關係는 失敗했다고 인식한 집단이 절대적으로 많았으나, 同僚와의 關係는 成功했다고 인식한 집단이 절대적으로 우세했다.

[표 3.3] 학년별 대학생활에 대한 성패인식의 빈도표

(N=490)

	학업성적		교수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성공	실패	성공	실패	성공	실패
1학년 (N=163)	50 (30.7%)	113 (69.3%)	22 (13.5%)	141 (86.5%)	124 (76.1%)	39 (23.9%)
2학년 (N=199)	57 (28.6%)	142 (71.4%)	31 (15.6%)	168 (84.4%)	161 (80.9%)	38 (19.1%)
3학년 (N=128)	35 (27.3%)	93 (72.7%)	10 (7.8%)	118 (92.2%)	90 (70.3%)	38 (29.7%)
χ^2	0.40497		4.28166		4.89400	
유의도	0.81670		0.11756		0.08655	
전체 (N=490)	142 (28.98%)	348 (71.02%)	63 (12.86%)	427 (87.14%)	375 (76.53%)	115 (23.47%)

$$df = 2$$

특히 敎授-學生關係에 있어서는 이길래 外(1996)의 연구결과의 “바람직한 인간 관계를 맺고 있는 반응”이 5.5%라는 응답¹⁷⁾과 金星國·辛翰源(1997)의 “교수-학생 관계관이 부정적인 반응”이 75.1%라는 것¹⁸⁾을 감안할 경우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또한 동료와의 관계가 성공했다고 하는 빈도는 평균 76.53%로서 선행연구인 一般大學生의 64.17%보다 우세하여 宿營生活의 特徵이라고 볼 수 있는데¹⁹⁾ 이것은 宿營生活의 敎育目標라고 할 수 있는 共同體 生活를 통한 協同心의 培養에 합치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²⁰⁾

17) 이길래 外, 수·해운계 승선계열 대학생들의 의식구조 및 직업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韓國航海學會紙 第20卷 第2號, 1996, p. 66.

18) 金星國·辛翰源, 海技高等教育機關 學生의 價値觀에 관한 研究, 韓國海洋大學校附設海事業研究所 論文集 第6輯, 1997, pp. 188~189.

19) 선행연구의 성공이라고 인식한 평균은 학업성적에서 29.14%, 교수와의 관계에서 20.70% 및 동료와의 관계에서 64.17%로 나타났다. 李煜基, 前揭書, 1991, pp. 31~32.

20) 한국해양대학교, 前揭書, p. 261.

학년간에 大學生活에 대한 成·敗歸因意識을 밝힌 자료는 다음 [표 3.4]과 같다. 통계적으로 학업성적의 차이는 $p < 0.05$ 로 유의하였지만, 教授와의 관계 및 同僚와의 관계는 $p > 0.05$ 로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되었다. 전체적으로 불 歸因性向은 努力이라는 비율이 높았으며, 학업성적에서는 각 학년별로 귀인성향의 순서가 달리 나타났고 일반대학생의 연구인 선행연구와 비슷한 결과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3.4] 학년별 대학생활에 대한 성패귀인의 빈도표

(N=490)

	학업성적				교수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능력	노력	남이성	운	능력	노력	남이성	운	능력	노력	남이성	운
1학년 (N=163)	22 (13.5%)	123 (75.5%)	8 (4.9%)	10 (6.1%)	29 (17.8%)	115 (70.6%)	14 (8.6%)	5 (3.1%)	45 (27.6%)	106 (65.0%)	2 (1.2%)	10 (6.1%)
2학년 (N=199)	10 (5.0%)	173 (86.9%)	6 (3.0%)	10 (5.0%)	39 (19.6%)	138 (69.3%)	14 (7.0%)	8 (4.0%)	47 (23.6%)	136 (68.3%)	5 (2.5%)	11 (5.5%)
3학년 (N=128)	6 (4.7%)	112 (87.5%)	2 (1.6%)	8 (6.3%)	22 (17.2%)	87 (68.0%)	13 (10.2%)	6 (4.7%)	33 (25.8%)	91 (71.1%)	4 (3.1%)	0 (0.0%)
χ^2	14.98706*				1.78359				9.71904			
유의도	0.02036				0.93849				0.13699			
전체 (N=490)	38 (0.8%)	408 (83.3%)	16 (0.3%)	28 (15.6%)	90 (18.4%)	340 (69.4%)	41 (0.8%)	19 (11.4%)	125 (25.5%)	333 (67.9%)	11 (0.2%)	21 (6.4%)

$df = 6, * p < 0.05$

3. 숙영생활태도와 학업성적의 실증분석

학생들의 宿營生活態도의 척도인 功過規定點數와 學業成績은 正的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H3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 [표 3.5]과 같이 나타났다. 功過規定點數와 學業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하여 單純相關關係分析(Simple Correlation)을 하였다.

우선 1, 2학년 362명을 대상으로한 피어슨(Pearson) 상관관계는 $r = 0.3530$ ($p < 0.001$)으로 弱한 相關關係(弱)을 보이고 있는데, 수 功과 규정점수가 높으면 학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 21) 선행연구에서는 학년간의 차이는 부정되었다. 李曙平, 前掲書, 1991, pp. 31~32.
- 22) 일반적으로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 계수(r)의 절대값이 1.00이면 완전한 상관관계, 0.90이면 매우 높은 상관관계, 0.70~0.80이면 상관관계가 높다고 말할 수 있으며, 0.50~0.60이면 적절한 상관관계 그리고 0.40이하면 약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수 있다. 이를 다시 켄달(Kendall)의 상관계수 및 스피어만(Spearman)의 상관계수로 다시 살펴보면 $r=0.1855$ 및 $r=0.2640$ 으로 나타나 났으며 $p<0.001$ 수준에서 두 상관계수는 모두 有意하였다.

다음으로 1, 2, 3학년 490명을 대상으로한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는 $r=0.2794$ ($p<0.001$)으로 弱한 相關關係를 보이고 있는데, 즉 공과규정점수가 높으면 학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두 변수간의 상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수 있다. 이를 다시 켄달(Kendall)의 상관계수 및 스피어만(Spearman)의 상관계수로 다시 살펴보면 $r=0.1346$ 및 $r=0.1893$ 으로 나타나 났으며 $p<0.001$ 수준에서 두 상관계수는 모두 有意하였다.

결국 功過規定點數와 學點間에는 弱한 相關關係가 존재하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여 학점이 높으면 공과규정점수도 좋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宿營生活에 관한 기존의 연구인 鄭世模 外(1984) 및 李相鍊 外(1988)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어 宿營生活의 必要性 및 妥當性을 示唆하고 있다.

[표 3.5] 공과규정점수와 학점간의 상관계수

	피어슨 상관계수	켄달 상관계수	스피어만 상관계수
1, 2학년 (N=362)	$r=0.3530^{***}$	$r=0.1855^{***}$	$r=0.2640^{***}$
1,2,3학년 (N=490)	$r=0.2794^{***}$	$r=0.1346^{***}$	$r=0.1893^{***}$

*** $p < 0.001$

4. 학교풍토의식과 학업성적, 숙영생활태도에 관한 실증분석

(1) 學校風土意識과 學業成績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學校風土意識과 學業成績과는 正的 상관계수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④의 검증은 다음 [표 3.6]과 같다.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認知指向性이 $r=0.1186$, 教授-學生關係는 $r=0.1111$ 로 미미한 공통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결과를 보면 學校風土意識과 學業成績과는 상관계수 $r=0.0371$ 로서 매우 낮은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고, 통계적으로 상관의 의의가 없었다. 선행연구와 같이 학교풍토의식과 학업성적과는 전체적으로 정적 상관계수는 부정되었다.²³⁾

23) 선행연구의 學教風土意識과 成績의 상관계수는 $r=0.52$ 로 본 연구보다 높지만 통계적으로 부정되었다. 李煜基, 前揭書, 1991, p. 34.

[표 3.6] 학교풍토의식과 학업성적과의 상관관계

(N=490)

	실용지향성	학문지향성	인지지향성	캠퍼스사기	교수-학생관계	예절지향성	사회지향성	전체
상관계수	-0.0288	0.0628	0.1186**	-0.0123	0.1111*	-0.0329	-0.0484	0.0371
유의도	0.524	0.165	0.009	0.785	0.014	0.468	0.285	0.413

* $p < 0.05$, ** $p < 0.01$

(2) 學校風土意識과 生活態도의 관계에 관한 尙證分析

학생의 學校風土意識과 功過規定點數는 正적 尙關關係가 있을 것이라는 假說을 검증한 結果는 다음 [표 3.7]과 같다. 본 연구의 대상인 해기교육대학의 학생들은 生活態度를 評價받는 내용이 있어 이를 從屬變因으로 하였을 경우의 尙關關係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평가받는 주체가 다름으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1, 2학년에 限定하여 尙證하였다. 그러나, 학년간의 生活態도의 평가가 동일하다고 假定하였을 尙우를 포함하여 分析도 하였다. 結果를 보면 學校風土의식과 生活態度와의 尙關係수 $r=0.0895$ 로서 매우 낮은 尙關關係를 보이고 있고 統計적으로도 尙關의 意味가 없었다.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실용지향성에 $r=0.1106$ 으로 미미한 尙의 公同尙關關係를 나타내고 있고, 교수-학생 關係에는 $r=0.1713$ 으로 역시 미미한 公同尙關關係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학년별로 볼 경우에도 1학년의 경우 尙關係수 $r=-0.0159$ 로 미약한 尙의 尙關關係를 보이고 있으나 하위영역에서는 尙關關係를 찾을 수 없었고, 2학년의 경우 全體적으로 $r=0.1245$ 으로 미약한 尙關關係를 보였는데 교수-학생 關係에는 $r=0.2022$ 이며, 예절지향성에서는 $r=0.1439$ 의 미미한 公同尙關關係를 찾을 수 있었고, 3학년에서는 尙關關係를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統計적으로도 尙關의 意味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3.7] 학교풍토의식과 공과규정점수의 상관관계

	실용지향성	학문지향성	인지지향성	캠퍼스사기	교수-학생 관계	예절지향성	사교지향성	전체
1, 2학년 (N=362)	-0.1106*	0.0783	0.0670	0.0095	0.1713**	0.0737	0.0581	0.0895
유의도	0.035	0.137	0.203	0.857	0.001	0.162	0.270	0.089
1학년 (N=163)	-0.1273	0.0365	-0.0544	-0.0851	0.1374	-0.0759	0.0860	-0.0159
유의도	0.105	0.643	0.490	0.280	0.080	0.336	0.275	0.840
2학년 (N=199)	-0.1216	0.1156	0.1202	0.0314	0.2022**	0.1439*	0.0292	0.1245
유의도	0.087	0.104	0.1202	0.659	0.004	0.043	0.683	0.080
3학년 (N=128)	0.0266	0.0095	-0.0247	0.0310	-0.0909	-0.1494	-0.0414	-0.0500
유의도	0.766	0.915	0.782	0.729	0.307	0.092	0.642	0.575

* $p < 0.05$, ** $p < 0.01$

5. 성패귀인과 학업성적과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大學生活에 대한 成功認識 학생이 실패인식 학생보다 學業成績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 ⑥의 검증결과는 다음 [표 3.8]과 같다. 통계적으로 보면 학업성적에 관한 집단간의 차이 및 동료와의 관계의 차이에서는 두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教授와의 關係는 성공한 집단과 실패한 집단의 차이가 있으며, 특히 失敗한 集團이 성공한 집단보다 학점이 높은 것은 특이하다고 하겠다. 즉 0.0676의 평점이 낮은 집단이 교수와의 관계는 성공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一般大學生과는 正反對의 結果를 얻었다.²⁴⁾

[표 3.8] 대학생활에 대한 성패인식집단간 성적의 평균 및 표준편차

(N=490)

	학업성취				교수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N	평균	표준편차	t	N	평균	표준편차	t	N	평균	표준편차	t
성공	142	3.3292	0.648	5.95	63	3.0054	0.825	-0.77**	375	3.0214	0.628	-2.65
실패	348	2.9563	0.622		427	3.0730	0.622		115	3.2045	0.705	
유의도	0.709				0.005				0.093			

** $p < 0.01$

24) 선행연구에서는 대학 생활에 대하여 학업성취와 교수와의 관계에서 성공한 집단이 학점이 높았다. 李煜基, 前掲書, 1991, pp. 34~35.

成敗에 대한 內的歸因 학생이 外적귀인 학생보다 學業成績이 좋은 것이라는 가설 7을 검증한 내용은 다음 [표 3.9]과 같다. 歸因性向에 있어서 教授와의 關係가 통계적으로 보면 유의한데, 內的性向을 가진 집단이 外적성향을 가진 집단보다 점수가 0.0885 정도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다. 그리고 학업성취 및 동료와의 관계의 영역에서는 내적성향 학생이 외적성향 학생보다 학점이 낮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외적 성향과의 차이는 없으며 기검은 부정되었다. 또한 [표 3.10]은 각 요인별의 검정이다.

[표 3.9] 내학생향에 대한 성패귀인성향간 성적의 평균 및 표준편차

(N = 490)

	학업성취				교수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N	평균	표준편차	t	N	평균	표준편차	t	N	평균	표준편차	t
내적귀인	446	3.0543	0.653	-1.08	430	3.0752	0.639	0.89*	458	3.0577	0.662	-0.85
외적귀인	44	3.1659	0.635		60	2.9867	0.735		32	3.1591	0.471	
유의도	0.611				0.044				0.076			

* $p < 0.05$

[표 3.10] 내학생향에 대한 성패귀인의 요인별 성적의 평균 및 표준편차

(N = 490)

	학업성취				교수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N	평균	표준편차	F	N	평균	표준편차	F	N	평균	표준편차	F
성취	38	3.2147	0.7623	3.0750*	90	3.1468	0.6384	3.8022*	125	3.0395	0.7320	0.2935
능력	408	3.0394	0.6405		340	3.0562	0.6386		333	3.0646	0.5389	
나이	16	2.8638	0.5365		41	3.1571	0.6828		11	3.1845	0.5389	
성향	28	3.3386	0.6308		19	2.6189	0.7253		21	3.1457	0.4444	
유의도	0.0274				0.0103			0.8301				

* $p < 0.05$

大學生活에 대한 成·敗認識과 內·外的 歸因性向은 학업성취에 있어서 상호작용의 효과에 대한 가설 8인 '학업성취에 있어 成·敗認識과 內·外的 歸因性向의 상호작용효과는 없음 것이다'의 검증은 다음 [표 4.11]에서 부터 [표 4.17]까지이며, 긍정되었다.

- 25) 선행연구에서는 교수와의 관계와 동료와의 관계에서 외적성향 학생이 내적성향 학생보다 학점이 높았고, 학업성취 영역에서는 내적성향 학생의 학점이 높았다. 송만부, 前掲書, 1991, p. 36.

[표 3.11] 대학 생활에 대한 성패귀인의 성패집단간 빈도의 차

(N=490)

	학업성취		교수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성공 (N=142)	실패 (N=348)	성공 (N=63)	실패 (N=427)	성공 (N=375)	실패 (N=115)
내적귀인	117 (82.4%)	329 (94.5%)	57 (90.5%)	373 (87.1%)	358 (95.5%)	100 (86.9%)
외적귀인	25 (17.6%)	19 (5.5%)	6 (9.5%)	54 (12.9%)	17 (4.5%)	15 (13.1%)
χ^2	18.20258***		0.49816		10.44200**	
유의도	0.00002		0.48031		0.00123	
능력	18 (12.7%)	20 (0.6%)	17 (26.9%)	73 (17.1%)	89 (23.7%)	36 (31.3%)
노력	99 (69.7%)	309 (88.8%)	40 (63.5%)	300 (70.3%)	269 (71.7%)	64 (55.7%)
난이성	4 (2.8%)	12 (0.3%)	0 (0.0%)	41 (0.9%)	1 (0.3%)	10 (12.6%)
운	21 (14.8%)	7 (10.3%)	6 (9.6%)	13 (11.7%)	16 (4.3%)	5 (0.4%)
χ^2	39.58596***		15.27774**		33.18190***	
유의도	0.00000		0.00159		0.00000	

** $p < 0.01$, *** $p < 0.001$

[표 3.12] 성패집단(학업성취)과 귀인성향에 따른 성적 및 상호작용효과 분석

(N=490)

		성공	실패			
내적귀인		3.31 (N=117)	2.29 (N=329)			
외적귀인		3.41 (N=25)	2.85 (N=19)			
변량원		전체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유의도
주효과	성패집단	0.499	1	0.499	1.256	0.263
	귀인성향	13.530	1	13.530	34.079	0.000
상호작용효과		0.406	1	0.406	1.021	0.313
설명변량		14.434	3	4.811	12.119	0.000

[표 3.13] 성패집단(학업성취)과 귀인요인에 따른 성적 및 상호작용효과 분석 (N=490)

		성공	실패			
능력		3.13 (N=18)	3.30 (N=20)			
노력		3.35 (N=99)	2.94 (N=309)			
난이성		3.06 (N=4)	2.80 (N=12)			
운		3.47 (N=21)	2.94 (N=7)			
변량원		전체 사승화	사유도	평균 사승화	F	유의도
주요과	성패집단	14.028	1	14.028	35.744	0.000
	귀인요인	1.173	3	0.391	0.997	0.394
상호작용효과		3.014	3	1.005	2.560	0.054
설명변량		18.215	7	2.602	6.630	0.000

[표 3.14] 성패집단(교수와의 관계)과 귀인성향에 따른 성적 및 상호작용효과 분석 (N=490)

		성공	실패			
내적귀인		3.13 (N=57)	3.07 (N=373)			
외적귀인		1.80 (N=6)	3.12 (N=54)			
변량원		전체 사승화	사유도	평균 사승화	F	유의도
주요과	성패집단	0.251	1	0.251	0.619	0.432
	귀인성향	0.434	1	0.434	1.069	0.302
상호작용효과		9.413	1	9.413	23.188	0.000
설명변량		10.098	3	3.366	8.292	0.000

[표 3.15] 성패집단(교수와의 관계)과 귀인요인에 따른 성적 및 상호작용효과 분석 (N=490)

		성공	실패			
능력		2.99 (N=17)	3.18 (N=73)			
노력		3.19 (N=40)	3.04 (N=300)			
난이성		0.00 (N=0)	3.16 (N=41)			
운		1.80 (N=6)	3.00 (N=13)			
변량원		전체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유의도
주효과	성패집단	0.251	1	0.251	0.621	0.431
	귀인요인	4.589	3	1.530	3.782	0.011
상호작용효과		7.204	2	3.602	8.906	0.000
설명변량		12.044	6	2.007	4.963	0.000

[표 3.16] 성패집단(동료와의 관계)과 귀인성향에 따른 성적 및 상호작용효과 분석 (N=490)

		성공	실패			
내적귀인		3.02 (N=358)	3.21 (N=100)			
외적귀인		3.14 (N=17)	3.19 (N=15)			
변량원		전체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유의도
주효과	성패집단	2.953	1	2.953	7.028	0.008
	귀인성향	0.094	1	0.094	0.224	0.636
상호작용효과		0.143	1	0.143	0.340	0.057
설명변량		3.190	3	1.063	2.531	0.057

[표 3.17] 성패집단(동료와의 관계)과 귀인요인에 따른 성적 및 상호작용효과 분석 (N=490)

		성공	실패			
대학		2.87 (N=89)	3.46 (N=36)			
대학		3.07 (N=269)	3.06 (N=64)			
대학성		3.97 (N=1)	3.11 (N=10)			
성		3.08 (N=16)	3.35 (N=5)			
변량원		진제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유의도
수효과	성패집단	2.953	1	2.953	7.227	0.007
	귀인요인	0.310	3	0.103	0.253	0.860
상호작용효과		7.97	3	2.399	5.872	0.001
잔방편량		10.459	7	1.494	3.657	0.001

6. 성패귀인과 생활태도와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본 평가에서는 功過規定點數의 평가를 위하여 1, 2학년은 대상으로 362개의 표본을 자료로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大學生活에 대한 成功認識 학생이 실패인식의 학생보다 功過規定點數가 높은 것이라는 가설 9의 검증결과는 다음 [표 3.18]과 같다. 교수와의 관계 및 동료와의 관계의 차이에서는 통계적으로는 두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학업성취의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성공한 집단이 실패한 집단보다 7.82점 정도로 높은 평가규정점수를 기록하고 있었다. 따라서 가설 9는 부분부정되었다. 그러나 전 영역에 걸쳐 成功한 집단이 실패한 집단보다는 功過規定點數의 평균은 높았다.

[표 3.18] 대학생화에 대한 성패인식집단간 평가규정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N=362)

	학업성취				교수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N	평균	표준편차	t	N	평균	표준편차	t	N	평균	표준편차	t
성공	107	371.58	42.363	1.25*	53	373.01	46.018	1.01	285	369.22	49.113	2.14
실패	255	363.76	58.356		309	364.88	55.442		77	354.41	68.968	
유의도	0.018				0.424				0.106			

* $p < 0.05$

生活態度에 있어서 대학생활에 대한 成·敗認識과 內·外的 歸因性向은 學業成績에 있어서 相互作用 效果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인 가설 ① '功過規定點數에 있어 成·敗認識과 內·外的 歸因性向의 상호작용효과는 없을 것이다'의 검증은 다음 [표 3.21]에서부터 [표 3.26]까지인데,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표 3.19] 대학생활에 대한 성패귀인성향간 공과규정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N=362)

	학업성취				교수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N	평균	표준편차	t	N	평균	표준편차	t	N	평균	표준편차	t
내적성향	328	366.18	55.088	0.12	321	365.79	56.353	-0.28*	324	365.26	54.929	-1.18
외적성향	34	365.00	45.210		41	368.29	32.932		28	375.71	44.006	
유의도	0.45				0.037				0.254			

* $p < 0.05$

[표 3.20] 대학생활에 대한 성패귀인의 요인별 공과규정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N=362)

	학업성취				교수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N	평균	표준편차	F	N	평균	표준편차	F	N	평균	표준편차	F
능력	32	351.25	42.0253	1.1378	68	363.23	50.6507	0.1662	92	367.82	52.2846	0.4208
노력	296	367.80	56.1376		253	366.48	57.8644		242	364.29	55.9761	
난이성	14	374.28	56.2569		28	371.07	35.4170		7	372.85	68.9720	
운	20	358.50	35.7297		13	362.30	27.12674		21	376.66	376.3996	
유의도	0.3337				0.9191				0.7382			

[표 3.21] 성패집단(학업성취)과 귀인성향에 따른 공과규정점수 및 상호작용효과 분석 (N=362)

		성공			실패		
내적귀인		370.22 (N=90)			364.66 (N=238)		
외적귀인		378.82 (N=17)			351.18 (N=17)		
변량원		전체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유의도	
주효과	성패집단	4614.045	1	4614.045	1.571	0.211	
	귀인성향	274.573	1	274.573	0.094	0.760	
상호작용효과		3669.610	1	3669.610	1.250	0.264	
설명변량		8558.228	3	2852.743	0.971	0.406	

[표 3.22] 성패집단(학업성취)과 귀인요인에 따른 공과규정점수 및 상호작용효과 분석 (N=362)

		성공		실패		
능력		336.67 (N=15)		364.12 (N=17)		
노력		376.93 (N=75)		364.71 (N=221)		
난이성		420.00 (N=4)		356.00 (N=10)		
운		366.15 (N=13)		344.29 (N=7)		
변량원		전체 사승화	자유도	평균 사승화	F	유의도
주효과	성패집단	4614.045	1	4614.045	1.599	0.27
	귀인요인	13240.859	3	4413.620	1.529	0.27
상호작용효과		20410.162	3	6803.387	2.358	0.071
설명변량		38265.066	7	5466.438	1.894	0.069

[표 3.23] 성패집단(교수와의 관계)과 귀인성향에 따른 공과규정점수 및 상호작용효과 분석 (N=362)

		성공		실패		
내적귀인		377.23 (N=47)		363.83 (N=274)		
외적귀인		340.00 (N=6)		373.14 (N=35)		
변량원		전체 사승화	자유도	평균 사승화	F	유의도
주효과	성패집단	2991.818	1	2991.818	1.023	0.312
	귀인성향	227.029	1	227.029	0.078	0.781
상호작용효과		9839.999	1	9839.999	3.365	0.067
설명변량		13058.846	3	4352.949	1.489	0.217

[표 3.24] 성패집단(교수와의 관계)과 귀인성향 간의 공과규정점수 및 상호작용효과 분석 (N=362)

		성공	실패			
능력		364.29 (N=14)	362.96 (N=54)			
노력		382.73 (N=33)	364.05 (N=220)			
난이성		0.00 (N=0)	371.07 (N=28)			
운		340.00 (N=6)	381.43 (N=7)			
변량원		전체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유의도
주효과	성패집단	2991.818	1	2991.818	1.019	0.314
	귀인요인	2520.74	3	840.247	0.286	0.835
상호작용효과		11540.829	2	5770.415	1.964	0.142
설명변량		17053.389	6	2842.231	0.968	0.447

[표 3.25] 성패집단(동료와의 관계)과 귀인성향에 따른 공과규정점수 및 상호작용효과 분석 (N=362)

		성공	실패			
내적귀인		368.92 (N=268)	350.45 (N=66)			
외적귀인		374.12 (N=17)	378.18 (N=11)			
변량원		전체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유의도
주효과	성패집단	13300.958	1	13300.958	4.584	0.033
	귀인성향	4671.171	1	4671.171	1.610	0.205
상호작용효과		3009.747	1	3009.747	1.037	0.309
설명변량		20981.876	3	6993.959	2.410	0.067

[표 3.26] 성패 집단(동료와의 관계)과 귀인요인에 따른 생활평가 및 상호작용효과 분석 (N=362)

		성공		실패		
능력		366.80 (N=75)		372.35 (N=17)		
노력		369.74 (N=193)		342.86 (N=49)		
난이도		400.00 (N=1)		368.33 (N=6)		
운		372.50 (N=16)		390.00 (N=5)		
변량원	진해 사승화		사유도	평균 사승화	F	유의도
주요효과	성패집단	13300.958	1	3300.958	4.592	0.033
	귀인요인	5570.792	3	1856.931	0.641	0.589
상호작용효과		15549.823	3	5183.274	1.789	0.149
상명반량		34421.372	7	4917.367	1.698	0.108

제5장 결론

본 연구는 海技教育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에서의 學校風土意識과 成·敗歸因 및 宿營生活의 관계에 관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실증연구를 하였다. 사용한 모형은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국내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설문지를 토대로 적용하여 보았는데, 본 연구는 海技教育이라는 特殊한 상황하에 놓인 海技教育大學生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海技教育大學의 한 대학만을 기초로 하여 연구하였고, 宿營生活態度的 평가를 위한 척도를 공과규정점수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연구를 일반화시키는데 제한은 있으나, 본 연구의 妥當性을 確認하기 위하여 先行研究와 比較檢討를 하였다.

이상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海技教育이라는 특수한 목적의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반응은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宿營生活의 成果는 同僚와의 關係를 놓고 불 確定的으로 反應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대학의 반응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宿營生活態度的 평가척도로 사용한 功過規定點數와 學業成績과는 相關關

係를 보이고 있는데, 통계적으로 宿營生活에 잘 적응한 학생은 학점도 높다는 가설을 肯定하고 있다. 이는 宿營生活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어 宿營生活의 必要性 및 妥當性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學校風土意識은 1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학년일수록 낮아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社交指向性이 가장 높게 반응하고 있으며, 教授-學生關係가 가장 낮게 반응하고 있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내용을 間接的으로 確認시키고 있다.

넷째, 대학생들의 學校風土意識 및 成·敗歸因要因은 초중등학생과 달리 그들의 학업성적과 공과규정점수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대학생이라는 연구 대상을 고려할 때의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즉 海技教育大學에서도 일반대학과 같이 個人의 多樣性과 自律性이 尊重되고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1] 金眞嬉, 兒童의 學業成就結果에 대한 原因歸屬 및 授業方法과의 關係,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2.
- [2] 羅炳述, 一時的으로 附與된 成功 失敗의 經驗이 自我概念 및 特定課題 自我概念과 歸因性向에 미치는 영향, 圓光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9.
- [3] 亞洲大學校 學生生活研究所, 「學校風土調查」, 수원: 亞洲大學校, 1984.
- [4] 安貴德, 歸因性向, 知覺學級風土 및 두 變因의 相互作用이 學業成績에 미치는 影響, 中央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6.
- [5] 柳基變, 選定된 個人 및 環境的 變因과 學業成績과의 關係 分析, 中央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8.
- [6] 李煜基, 大學生의 學校風土意識 및 大學生活에 대한 成·敗歸因과 學業成就와의 關係, 中央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1.
- [7] 太源植, 大學生의 學校風土意識과 情緒的 特性間的 相關 研究, 延世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7.
- [8] Backer, G. S., (2nd ed.),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5.
- [9] Brookover, W. B. et al., Schools Can Make a Difference, East Lansing, Michigan: College of Urban Development, Michigan State University, 1977.

- [10] Freedman. J. L., D. D. Sears, and J. M. Carsmith, Social Psychology, N. J.: Prentice-Hall, 1981.
- [11] Pace, C. R. and G. G. Stern, "An Approach to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College Environ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49, 1958.
- [12] Stern, G. G., People in Context: Measuring Person-Environment Congruence in Education and Industry, New York: Wiley, 1970.
- [13] Weiner, B., "A Cognitive-Emotion-Action Model of Motivated Behavior: An Analysis of Judgement of Help Giv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39, 1980.



